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VIP REPORT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임상수,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41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	1
2.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 .....	4
3.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10
4. 시사점 .....	14
■ HRI 경제 지표 .....	19

### ■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다문화사회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 및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을 이끈다.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 및 만혼화·미혼화 등으로 국제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2006년 25만 명에서 2009년 57만 명까지 증가했다. 여성의 만혼화·미혼화로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가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이민자도 같은 기간 4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와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상당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내국인과의 혼인으로 가정을 형성하면서 국내 다문화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

**첫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9.9%에 달하여 OECD 19개국 평균인 5.9%를 훨씬 상회한다. 특히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42%에 그쳐 외국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둘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단순노무 종사율은 내국인이 8.3%정도인데 결혼이민자는 22.8%, 배우자는 18.0%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취업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 연수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20% 이상이 월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셋째, 체류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체류 외국인 범죄율은 2.0% 수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인 4.0%보다 낮으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외국인 범죄는 9,042 건에서 2009년 2만 3,322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를 상회한다.

**넷째,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 내 불안전성도 부각되고 있다.**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대상이 주로 1~12세인 점도 눈에 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4년 내 이혼율이 79%에 달하며 이혼사유도 정신·육체적 학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다섯째, 다문화인구는 정보기술 및 교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이 62.2% 수준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고 인터넷 활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취학 전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초·중고 정규과정 취학률도 국내 평균보다 낮은 83.0% 수준으로 교육 소외 현상도 관찰된다.

### ■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첫째,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내 외국인의 비중은 1.83%로 OECD 평균인 5.7%보다 낮고 한국의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도 2009년 기준 5개국 중 5위를 차지하여

과연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빠른 외국인 증가속도는 내국인들의 반감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20% 이상이 저소득가구인 반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 증가로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전성은 가족구성원의 위축뿐만 아니라 가족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에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1차적 안전망 기능을 지닌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파괴적인 가족 해체 및 영유아 학대는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감,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자존감을 위축시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1~12세 아동은 학대의 피해나 여파가 크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넷째, 국제 이주자가 겪는 정보격차는 다문화사회가 정착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이주자는 한국어가 미숙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 정보격차를 경험한다. 그 자녀는 낮은 취학률 등으로 고소득 업종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오랫동안 저소득층으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 시사점

**첫째,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는 민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다문화 전문 강사 육성, 초·중·고 교과과정에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제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국제 이주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소외된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국내에 장기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가족안전망을 보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인근 내국인 가정과의 연계를 맺어 친척처럼 상부상조하는 '차매결연 맺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육시스템 혜택 확대와 IT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사는 공단 지역이나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다문화 자녀의 교육 및 학업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국제 이주자에 제공하는 통합생활 정보 커리큘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종교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IT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 1.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 (정의) 다문화사회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며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사회구성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 및 국제 이주자를 들 수 있음

- 다문화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함<sup>1)</sup>
  - 국제적으로 자원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인종간의 공존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
-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사회구성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내지는 국제 이주자를 들 수 있으며 국내 입국 목적이나 국적취득 현황에 따라 명칭이 달라짐
  - 국내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지칭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을 국제 이주자(immigrant)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엄밀히 분류하면 국제 이주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함<sup>2)</sup>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sup>3)</sup>을 의미함
  -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함으로써 이뤄진 다문화가족<sup>4)</sup>과 그 자녀들도 다문화사회 진전을 촉진

1) 우종현 (2008),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3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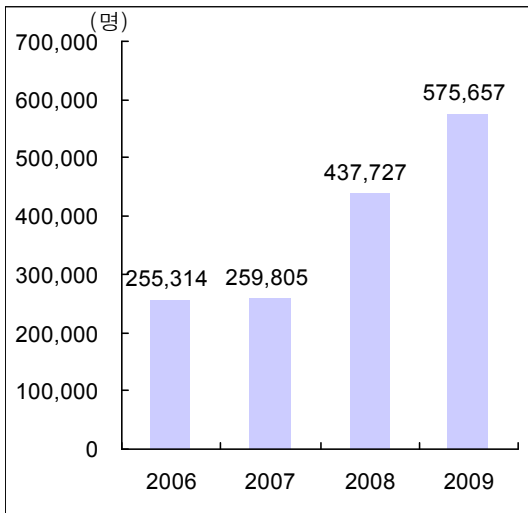
3)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함(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률 제 10374호).

4)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9932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엄격하게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지만 일반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이라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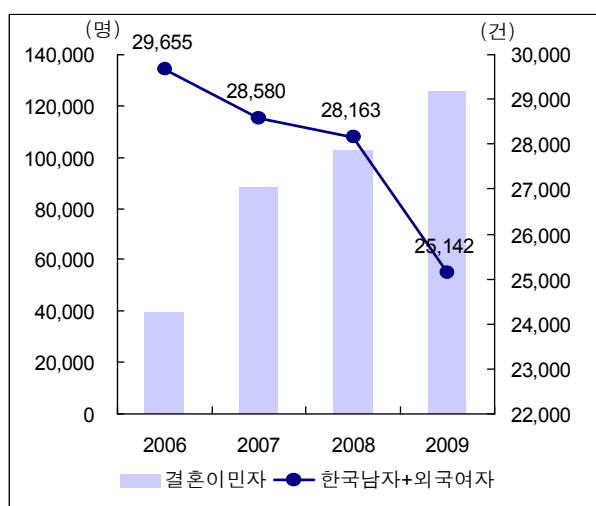
○ (현상)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 및 만혼화·미혼화 등으로 인해 국제 이주자가 증가하고 이들 가정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음

- 일반인이 기피하는 서비스업, 단순노동직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음
  - 국내 노동인구의 고학력화,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 단순노동직 기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4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
  - 이에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체류하는 근로자도 2006년 25만 5,314명에서 2009년 57만 5,657명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여성의 만혼화·미혼화로 특히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가 결혼상대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이민자가 증가
  - 국내 결혼이민자는 2006년 3만 9,525명에서 2009년 12만 5,67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간 국제결혼도 매년 2만 건 이상을 기록

<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 >



< 결혼이민자 수와 국제결혼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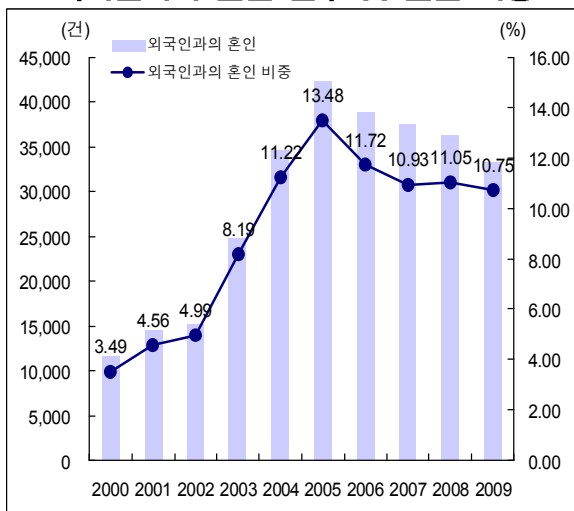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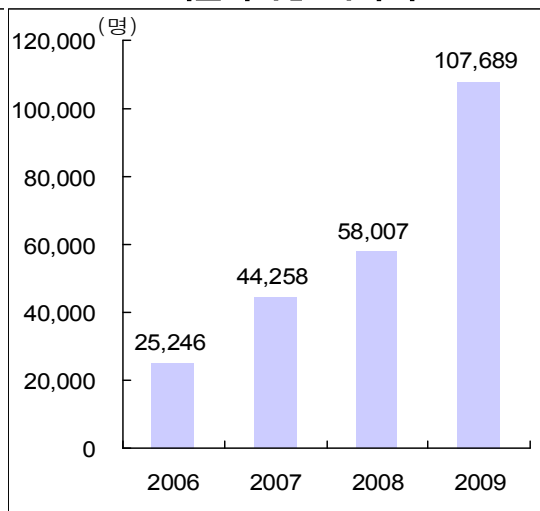
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수는 누적집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건수는 연도별 집계 실적임.

-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와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1만 1,605건을 기록했던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9년 3만 3,300건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49%에서 10.75%로 늘어났음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2006년 2만 5,246명에서 2009년 10만 7,689명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음

<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및 혼인 비중 >



< 다문화가정 자녀 수 >



자료: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주: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이처럼 한국 내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제기됨
- 하지만 국제 이주자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이에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2.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

### ○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

- 2000~2008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1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임
  - 비교가 가능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OECD국가들의 평균 거주 외국인 수는 2000년 1,906만 명에서 3,014만 명으로 연평균 5.9% 증가하였음
  - 그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8년간 4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19.9%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또한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는 연평균 0.41% 증가하는데 그쳐 국내 외국인 증가율 5.9%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 OECD국가별 입국·거주 외국인수 및 증가율 비교 >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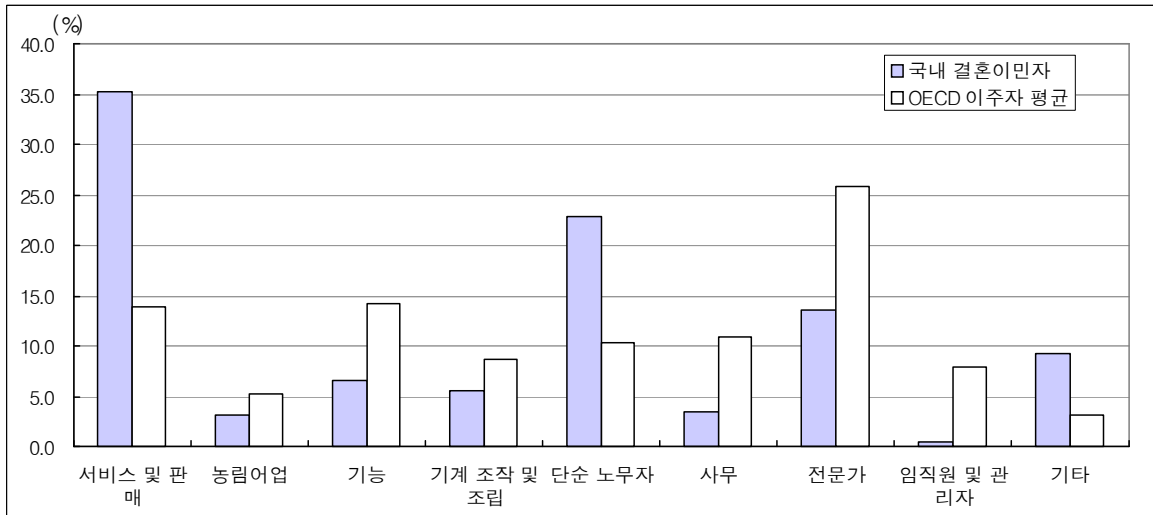
	입국 외국인수			거주 외국인수		
	2000	2008	2000~08 증가율	2000	2008	2000~08 증가율
전체	2,151.0	3,075.1	0.046	19,062.9	30,139.7	5.89
한국	185.4	311.7	6.71	210.2	895.5	19.86 (1위)
스페인	330.9	692.2	9.67	1,370.7	5,598.7	19.23 (2위)
이탈리아	(-)	(-)	(-)	1,379.7	3,891.3	13.84 (3위)
그리스	(-)	(-)	(-)	304.6	733.6	11.61 (4위)
체코	4.2	77.8	43.92	201.0	437.6	10.22 (5위)
포르투갈	15.9	32.3	9.25	207.6	443.1	9.94 (6위)
슬로바키아	4.6	16.5	17.21	28.8	52.5	7.81 (7위)
영국	260.4	456.0	7.25	2,342.0	4,196.0	7.56 (8위)
헝가리	20.2	37.5	8.05	110.0	184.4	6.66 (9위)
노르웨이	27.8	58.8	9.83	184.3	303.0	6.41 (10위)
핀란드	9.1	19.9	10.26	91.1	143.3	5.83 (11위)
일본	345.8	344.5	-0.05	1,686.4	2,215.9	3.47 (12위)
룩셈부르크	10.8	16.8	5.69	164.7	215.5	3.42 (13위)
덴마크	(-)	(-)	(-)	258.6	320.2	2.70 (14위)
오스트리아	66.0	94.6	4.62	701.8	867.8	2.69 (15위)
스위스	87.4	157.3	7.61	1,384.4	1,638.9	2.13 (16위)
스웨덴	42.2	82.0	8.65	472.4	555.4	2.04 (17위)
네덜란드	91.4	103.4	1.55	667.8	719.5	0.94 (18위)
독일	648.8	573.8	-1.52	7,296.8	6,727.6	-1.01 (19위)

자료: OECD, UN.

○ 서비스 및 판매, 단순 노무 등 특정 부문 종사 이주민 유입이 두드러짐

- OECD국가의 국제 이주자 직종별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결혼이민자의 서비스업 및 판매, 단순노무 종사 비율이 높음
  - OECD국가들의 경우, 전문가(직)에 종사하는 이주자가 25.7%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및 판매업, 기능, 사무직 순이며 업종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한편 국내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의 50% 이상이 서비스업 및 판매, 단순 노무직에 치우쳐져 있으며 사무직,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비중이 낮음

<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종사 비중 >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OECD.

주: 전문가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

- 내국인 직종별 종사현황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결혼이민자들의 직종별 치우침 현상이 확인됨
  - 내국인의 서비스업 종사율은 7.9%인데 반해 결혼이민자의 서비스업 종사율은 29.4%, 배우자의 종사율은 9.4%로 상대적으로 높음
  - 단순노무 종사율도 일반 내국인은 8.3%인데 결혼이민자는 22.8%, 배우자는 18.0%임
  - 반면 결혼이민자의 사무직, 임직원 및 관리자 업종 종사율은 비교적 낮음

5) [별첨] 참조.

##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 이에 결혼이민자가족의 20%이상이 월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됨<sup>6)</sup>
  -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가구수입을 얻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21.3%로 일반 내국인의 9.67%에 비해 높음
  - 한편 500만 원 이상 가구수입을 올리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2.1%에 불과해 내국인의 1/9 수준
  - 또한 결혼이민자의 33.0%만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소유자로 구분됨
  
- 국내 체류외국인의 취업자격별 현황을 살펴보아도 단순기능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비전문취업<sup>7)</sup> 및 연수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 외국인은 51만 1,160명을 기록하여 전체의 92.6%를 차지함
  - 이는 2005년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체류외국인의 87.5%를 차지하던 데서 증가한 수치임
  - 전문가 이주자가 전체 이주자의 25%이상을 차지하는 OECD 국제 이주자현황과 내국인의 17% 이상이 전문가로 분류되는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순기능인력 외국인 비중이 매우 높음

### <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및 비중 >

(단위 : 명, %)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계
2005	24,785 (12.5)	173,549 (87.5)	173,461
2006	29,011 (11.1)	231,773 (88.9)	231,684
2007	33,502 (7.0)	442,677 (93.0)	442,584
2008	37,304 (6.8)	511,249 (93.2)	511,156
2009	40,698 (7.4)	511,160 (92.6)	511,067

자료: 법무부,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 괄호안은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비중.

6) [별첨] 참조.

7) 합법화(E-9-1), 고용허가(E-9-2~7), 고용특례(E-9-A~K)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

○ 체류 외국인 범죄율<sup>8)</sup>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 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2009년 기준 외국인 범죄율은 2.00%를 기록하여 내국인 범죄율인 4.14%보다 낮은 수준임<sup>9)</sup>
  - 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체류외국인은 74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56% 가량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는 9,042건에서 2만 3,3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외국인 강력범죄도 228건에서 48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체류외국인 범죄 건수 추이 >

(단위 : 건, %)

	외국인 범죄		외국인 강력범죄		외국인 범죄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2005	9,042	-0.7	228	-15.2	1.21
2006	12,657	40.0	247	8.3	1.39
2007	14,524	14.8	286	15.8	1.36
2008	20,623	42.0	332	16.1	1.78
2009	23,344	13.2	489	47.3	2.00

자료: 경찰청,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 수치.

○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 내 불안전성도 부각되고 있음

-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정 형태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영유아는 대부분 보육시설이나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1.6%의 영유아가 아이 혼자 지내고 있음
  -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동학대의 90%가량이 상대적으로 자기 방어가 어려운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음

8) 외국인 범죄율은 국내 거주 외국인 대비 범죄 발생 비율(범죄발생건수/국내 거주 외국인).

9) 경찰청, '2010 경찰백서'.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영유아 보호 실태 및 연령별 아동학대 비중 >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b>6세 미만 영·유아 보호</b>		
보육시설 유치원	58.8%	53.3%
학원 등 기타기관	1.5%	1.8%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기타	1.1%	2.0%
본인 또는 배우자	32.6%	37.6%
기타 가족	4.3%	5.1%
봐주는 사람 없음	1.6%	0.0%
계	100.0%	100.0%
<b>연령별 학대아동 비중</b>		
1세 미만	8.29%	2.45%
1~3세	23.76%	8.57%
4~6세	18.23%	12.49%
7~9세	23.20%	21.97%
10~12세	17.13%	26.05%
13~15세	7.18%	21.95%
16~18세	2.21%	6.53%
계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결혼이민자의 경우 4년 내 이혼율이 높고 이혼사유도 배우자 부정 및 정신·육체적 학대 등이 많음<sup>10)</sup>
  - 결혼이민자가 4년 내 해체(이혼)하는 비율은 79.0%로 국내평균의 27.2%에 비해 2.9배에 달함
  - 이혼사유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부정 및 정신·육체적 학대, 경제문제 등 정신적 피해가 크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높음

○ 다문화인구는 정보기술 및 교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사용률은 62.2%로 국내 평균의 77.6%에 비해 낮고 활용도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0) [별첨] 참조.

-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사용률은 30대 및 30대 이하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또한 인터넷 활용 목적에 있어서도 자료 및 정보의 획득, 이메일 사용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학습, 커뮤니티 활동 등 일반적 사회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편

<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인터넷 사용률과 이용 목적 비중 >

	결혼이민자(A)	국내 평균(B)	차이(A-B)
<b>인터넷 사용률</b>			
30대 이하	70.5%	96.8%	26.3%p
30대	71.1%	98.8%	27.7%p
40대	45.1%	84.3%	39.2%p
50대 이상	20.8%	35.1%	14.3%p
전체	62.2%	77.6%	15.4%p
<b>인터넷 이용 목적 비중</b>			
자료 및 정보획득	52.7%	89.4%	36.7%p
이메일	47.7%	85.2%	37.5%p
채팅	39.6%	51.0%	11.4%p
여가활동	36.6%	88.4%	51.8%p
교육 및 학습	38.4%	52.5%	14.1%p
쇼핑	30.4%	62.3%	31.9%p
뱅킹	12.9%	36.9%	24.0%p
커뮤니티 활동 등	7.0%	43.8%	36.8%p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주: 국내평균의 채팅 목적 인터넷 사용률은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목적비율을 이용.

-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취학률도 국내 평균을 밑도는 상황임<sup>11)</sup>
  - 평균적인 국내 아동의 한국어 능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20~93 정도의 능력을 보임
  -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83.0%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평균인 95.0%와 12.0%p 가량 차이가 남

11)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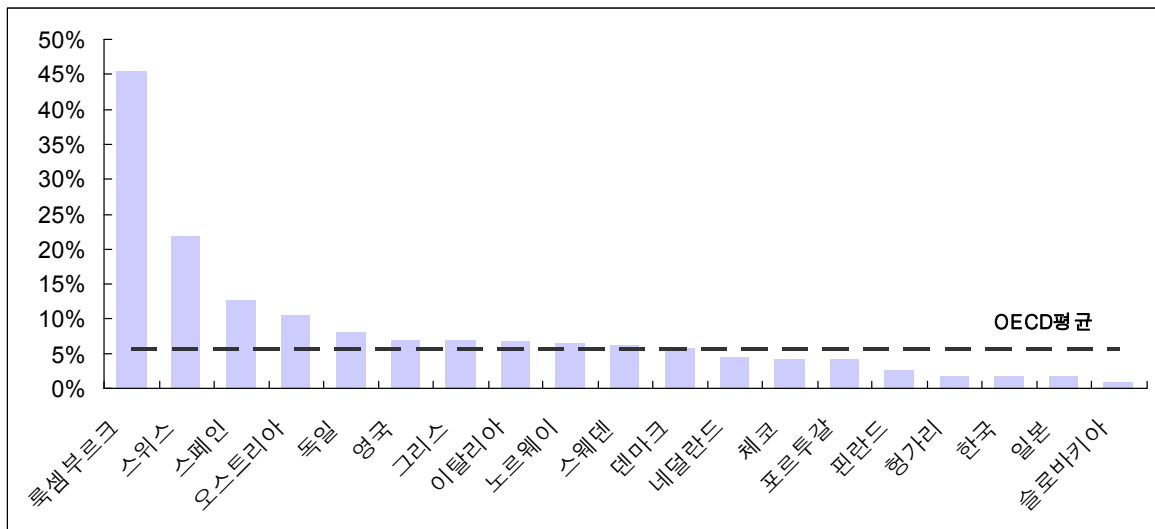
### 3.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한국의 다문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 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1.83%로 OECD 평균인 5.74보다 낮고 순위도 조사대상 OECD 19개국 중 17위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IMD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도는 2009년 기준 57개국 중 56위를 차지하여<sup>12)</sup> 인식 개방도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국가의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중 >

(단위 : 천명, %)



자료: OECD, UN.

-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빠른 외국인 증가속도는 자칫 한국 내 다인종간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있음

1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9.

-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기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 익숙해져있음
- 여기에 저소득 노동자 위주의 이주민 유입, 그 수는 적지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 등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체류 이주민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과 타문화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간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위축될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도 내국인·외국인간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음

○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서비스업, 단순노무업 종사비율이 높은 국제 이주자는 국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 비율이 높음
  - 국내 일반가정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비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는데 반해,
  - 결혼이민자 가정의 저소득가구 비율은 21.3%로 빈곤율이 일반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과 관련한 재정 부담이 우려됨
  -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지원 수급률은 52.5%이지만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의 수급률은 19.2%에 그침
  - 이는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함
  - 향후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복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다문화가정의 불안전성은 가족구성원의 위축뿐만 아니라 가족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족구성원에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양육을 도모함
  - 가족은 생계유지의 경제적 기능, 성적 및 재생산을 통한 인구증식, 자녀양육 및 사회화, 심리적·신체적 안정감 제공 등의 기능을 지님
  - 가족구성원들은 가정 내 보호막 안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고, 가족 구성의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
-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파괴적인 가족 해체 및 영유아 학대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함
  - 상당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이혼사유가 폭력·학대라는 점은 가족 해체 전에도 가정 내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의 학대·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이러한 부부의 갈등 및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안감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자존감을 위축시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12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학대 피해 강도나 여파가 크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함

○ 국제 이주자가 겪는 정보격차는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제 이주자 및 그 가정은 정보 습득 및 교육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서툰

거나 매우 서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1%, 24.2%, 31.6%를 기록하였으며 애로사항 의논, 여가 및 취미 공유 등 교류 대상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함

- 이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sup>13)</sup>
- 또한 그 자녀는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소득 업종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장기적으로 빈곤선에 머무를 가능성이 존재함
-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사회 적응이 더딜수록 그 자신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별 분포 및 활동별 교류대상자 비중 >

	한국어 능력				교류활동		
	말하기	읽기	쓰기		의논	여가공유	경조사참석
매우잘한다	17.4%	17.5%	16.1%	아무도 없음	15.5%	22.6%	17.7%
잘한다	19.9%	20.5%	16.9%	모국인 위주	38.7%	27.7%	15.2%
보통이다	38.7%	37.8%	35.4%	한국인 위주	34.5%	37.8%	52.0%
서툰편이다	17.8%	17.0%	21.5%	제3국인 위주	1.4%	2.6%	1.4%
매우서툴다	6.3%	7.2%	10.1%	두집단 이상	9.7%	9.3%	13.7%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고립과 경제적 상황은 내국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음
  - 다문화가정이 고립되면서 일반인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국제 이주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3)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문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함(24세 이하 결혼이민자의 10.8%만이 '경제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답한 반면, 50세 이상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 비율이 40.5%로 급증).

#### 4. 시사점

**첫째,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는 타인종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문화에 대한 서로 간 이해를 넓혀 사회 갈등 요인을 제거해야 함
  - 무엇보다도 외국인을 사회일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극복해야함
  - 타문화를 인정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다문화 강사육성, 초중고 교과과정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함
  -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여 다문화 전문강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초중고 교과과정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제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유입되는 국제 이주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을 방치한다면 저소득층의 증가,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문제가 될 수 있음
  - 경제적 어려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들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단순노동 및 이른바 3D 업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산업계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자격이 있으나 소외된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가족안전망을 보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결혼이민자 가정은 국내 거주 친척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 해체의 위협을 받을 때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근 내국인 가정과의 연계를 맺어 친척처럼 상부상조하는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육시스템 혜택 확대와 IT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 외국인과 그 자녀는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보격차를 경험하며 이에 따라 사회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언어 및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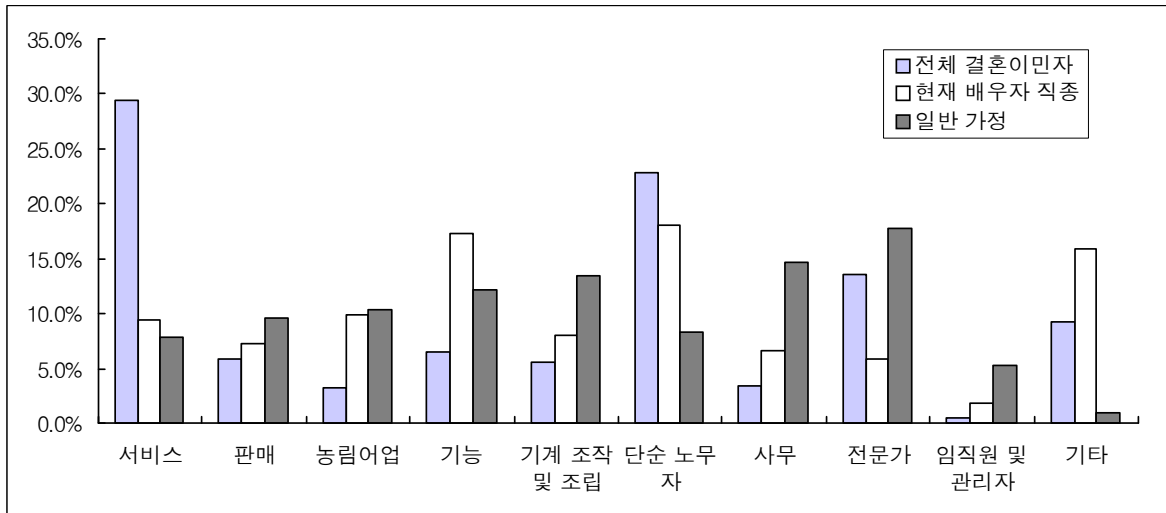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됨

-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수도권 공단 지역이나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 국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및 학업고충 해결 등을 지원하고,
-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외에도 주택, 의료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커리큘럼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시민, 종교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IT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함

전혜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02-2072-6241)

【별첨】 주요 그림 및 표

<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직종별 종사율 현황 >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 전문가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

< 결혼이민자의 경제여건 현황 >

	결혼이민자	내국인
<b>가구소득</b>		
100만원 미만	21.3%	9.7%
100~200만원 미만	28.4%	17.2%
200~300만원 미만	18.7%	21.5%
300~400만원 미만	5.7%	20.3%
400~500만원 미만	1.8%	13.2%
500만원 이상	2.1%	18.1%
<b>거처점유형태</b>		
자가(본인 및 배우자 소유)	33.0%	55.6%
전세·월세	42.2%	41.4%
무상(배우자 부모 소유 포함)	19.6%	3.1%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이혼율 및 이혼사유 비교 >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4년 내 이혼율	79.0%	27.2%
이혼사유		
배우자 부정(외도)	13.2%	8.3%
정신·육체적 학대	12.9%	5.0%
가족간 불화	7.0%	7.4%
경제문제(또는 경제적 무능력)	19.0%	14.4%
성격차이	29.4%	46.6%
기타	18.5%	18.2%

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통계청, '2008년 사회조사결과'.

<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및 취학률 >

	다문화가정의 자녀	국내 평균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 능력		
수용어휘능력	66.69	100
자음정확도	93.83	100
단어수준 음운인식능력	42.31	100
음절수준 음운인식능력	47.56	100
음소수준 음운인식능력	20.27	100
자녀의 취학률		
초등학교	85.5%	97.7%
중학교	83.7%	96.2%
고등학교	69.9%	92.5%
평균	83.0%	95.0%

자료: 시사저널, "코리언 드림' 그늘에 방치된 '다문화' 2세대들", 2009.1.21. 양성오, '취학전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2009.

주: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국내 평균 수준은 100으로 두고 환산한 결과.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sup>P</sup>			2010 <sup>P</sup>				2011 <sup>E</sup>	
			3/4	4/4	연간	1/4	2/4	3/4	연간 <sup>E</sup>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1.0	6.0	0.2	8.1	7.2	4.5	5.9	4.3	
	민간소비 (%)	1.3	0.7	5.8	0.2	6.3	3.7	3.3	4.2	3.8	
	건설투자 (%)	-2.8	4.4	5.0	4.4	2.3	-2.9	-2.1	0.2	1.5	
	설비투자 (%)	-1.0	-7.0	13.3	-9.1	29.9	30.2	25.2	20.0	8.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58	104	106	427	13	103	121	300	197
		무역수지 (억 \$)	-133	102	124	426	30	145	116	400	297
	수출 (억 \$)	4,220	948	1,040	3,635	1,011	1,203	1,173	4,516	5,003	
		증감률 (%)	(13.6)	(-17.6)	(11.7)	(-13.9)	(35.8)	(33.1)	(23.7)	(24.2)	(10.8)
	수입 (억 \$)	4,353	848	929	3,231	981	1,058	1,507	4,114	4,707	
		증감률 (%)	(22.0)	(-31.0)	(1.4)	(-25.8)	(37.4)	(43.0)	(24.5)	(27.3)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0	2.4	2.8	2.7	2.6	2.9	2.9	3.0	
실업률 (%)		3.2	3.6	3.3	3.6	4.7	3.5	3.5	3.8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8	75	62	76	78	74	78.8	88.7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239	1,168	1,276	1,143	1,165	1,184	1,159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